

# 정동적 전회와 증언의 쓰기

— 김숨의 『한 명』을 중심으로 —

장수희\*

## 목 차

1. '위한' 글쓰기와 되먹히는 언어
2. 증언이 말한다
3. 탈주하는 언어들과 정동하는/되는 독자
4. 일상어의 역사
5.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김숨의 소설 『한 명』이 소설 쓰기에 활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증언 각주 달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정동이론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김숨이 소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가 했던 증언 속의 문장을 직접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일본군‘위안부’를 재현한 다른 소설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설가 혹은 서술자가 소설 전체를 장악하고 일본군‘위안부’를 재현해 온 많은 소설들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해’ 서술하는 순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어 버림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동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증언을 하는 사람, 듣고, 읽고 쓰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읽는 사람들은 각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겹쳐 읽게 된다. 이로서 『한 명』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로 정동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주달기는 남성주체의 역사를 써온 말과 글에 일본군‘위안부’들이 했던 ‘말’의 각주를 다는 작업을 통해 우리 말에 여성의 역사와 언어가 겹쳐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민족으로 일반화된 말이 아닌 여성의 역사가 겹쳐져 있는 말의 출처를 밝히는 이 방법은 타자의 언어를 받아들여 자신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쓰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동적 전회, 증언, 김숨, 한명, 일본군‘위안부’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 1. ‘위한’ 글쓰기와 되먹히는 언어

철학과 언어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의 변화를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언어가 사유의 투명한 매개가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견지한다.<sup>1)</sup> 반면, 정동적 전회는 언어와 사유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언어적 전회에서 벗어나 어떻게 전-언어적/언어외적/언어 초월적인 ‘외부’ 영역들이, ‘저급’ 혹은 근위 감각들(촉각, 미각, 후각, 리듬, 운동 감각, 혹은 대체적/최종적으로 자율신경계 등)과 서로 교차하는지에 집중하고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보다 넓게 정의하려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논의는 멜리사 그레그와 그레고리 시스워스가 분류한 여덟가지 정동에 대한 접근법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멜리사 그레그와 그레고리 시스워스의 분류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접근법은 인간/비인간의 본성이 뒤섞인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구체화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포스트 현상학적 접근, 비계나 연장을 이루는 신체의 함입능력에 대한 탐구를 포함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인간/기계/비유기체의 배치물에 대한 최근의 경향으로 사이버네틱스, 생명정보학/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경향이다. 세 번째 접근법은 철학의 젠더화된 한계들이나 문화적인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현대적인 시도로 페미니스트들 작업들, 이탈리아 자율주의, 문화연구, 정치 철학 등에서 찾는다. 네 번째 접근법은 심리학적 이거나 정신분석학적 연구로, 정동을 하나의 범주로 지정해 특정 범위의 정동과 작동방식에 따라 제한된 윤곽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언

1)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미명의 목록[창안]」, 최성희 외 2명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25-26쪽, 각주11번.

2)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위의 책, 26쪽.

뜻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치적 참여 작업들인데 규범화의 대상이 되는 서발턴들이 하는 생활의 물질성과 이 물질성에 반복되는 권력의 행사가 신체에 곤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실현할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보는 경향이다. 일곱 번째 경향은 정서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면화된 자아나 주체성의 문제를 넘어 반항하는 세계와 감정/정념에 결부된 표현성의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다. 여덟 번째 접근법은 과학연구와 실천에 관련된 것으로 유물론에 대한 다원론적 접근 방식들을 포함한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언어적 전회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언어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여성의 말들이 어떻게 삭제되거나 전해질 수 없게 되는지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정동적 전회를 통해 김숨의 소설 『한 명』이 인용하고 있는 증언과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동하게 되며 그것이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마이너리티와 여성의 말을 어떻게 삭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일본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토 시오리의 『블랙박스』를 통해 살펴보자.

젊은 여성 언론인인 『블랙박스』의 필자는 지인이었던 언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경험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성폭력 생존자로서 이름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겪은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토는 자신이 강간을 당할 당시의 정황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당시 저항을 하며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3)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같은 책, 23-28쪽 참조.

“아파요. 하지 마세요(やめて下さい)”

(중략) 그때까지 ‘하지마세요’라고만 반복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했다.<sup>4)</sup>

한국에서 아메페, 기모치 같은 단어들 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단어가 아니라 ‘일본 AV의 여배우들이 하는 말’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블랙박스』를 읽으면서 경악스러운 것은 성폭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할 수밖에 없는 말이 AV의 대사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과 문법이 여성과 소수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피해자 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해자의 문법, 가해의 체계에 되먹혀버린다. 이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스피박은 서발턴의 저항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언제나 이미 정치적 재현의 지배적 체계들을 거쳐 여과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5)</sup>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는 말은 서발턴이 죽을 힘을 다해 말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의 발화행위가 재현의 지배적인 정치체계 안에서 혹은 지배적인 말의 문법 안에서밖에 말할 수 없음을, 가해의 문법에 되먹혀버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탈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담론적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결정된 정치적 경제적 재현체계 안에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sup>6)</sup>

이런 일은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사에서 자주 일어난다. 소설가들은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을 ‘이야기’라는

4) 이토 시오리, 『블랙박스』, 김수현 옮김, 미메시스, 2018, 51-52쪽.

5) 스티브 모튼,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엘피, 2005, 127쪽.

6) 스티브 모튼, 위의 책, 129쪽.

서사체계 속에서 재현한다. 소설가 혹은 서술자라는 이야기의 지배자는 ‘소설’이라는 고정되고 지배적 재현체계 속에서 증언을 완결된 어떤 것으로 드러내어 왔다.<sup>7)</sup> 증언은 ‘소설’ 혹은 ‘한국어 문법’ 혹은 ‘영어 문법’에 맞추어 ‘소설의 형식’에 맞추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적 서사체계, 남성중심의 언어체계, 가부장적 사회체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스피박이 말했던 서발턴이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과 ‘문법’이라는 지배적 재현체계 속에서 ‘그들의 증언을 소설가의 목소리로, 혹은 서술자의 목소리로 그들을 ‘위해’ 대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발턴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이 이른바 정동적 전회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본군‘위안부’ 서사 속에서 한국어의 문법을 따른 문장들이 지배적 재현체계에 되먹이지 않고 완결된 내러티브 속의 문장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흔들리며 정동하고 읽는 이들을 정동되게 하는 소설 쓰기과 읽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한국어 체계와 이야기의 체계가 만나 충돌하고 분출하는 힘들이 ‘소설’이 되었다면 이 ‘소설’ 속에서 다른 문법, 다른 이야기의 체계로 이행하려는 힘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힘들의 이행을 읽는, 입으로, 눈으로,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접촉하게 되는 ‘마주침’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김숨의 『한 명』의 서사 속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7)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로 하여 발표된 많은 소설들이 위안소에서의 생활과 현재의 삶을 현재-과거 혹은 외화(外話)-내화(內話)의 구조로 교차하며 쓰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대로, 현재의 이야기는 현재의 이야기대로 ‘완결’되어 버린다.

## 2. 증언이 말한다

증언은 과거를 말하면서도 당사자의 현재를 말하는 과정이다.<sup>8)</sup> 사카모토 치즈코는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에 대해 ‘구전되는 것, 심판을 받는 것에 따라 발언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증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일본군‘위안부’ 증언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해석’하기보다 그대로 ‘청취’해야 한다<sup>9)</sup>는 것이다. 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이 끝난 후 귀국했던 당시와 신고 전, 신고 후의 감정연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귀국직후	→	신고 전	→	현재(신고한 후)				
개인의 신체적 경험에 대한 감정	→	사회규범 속에서 생긴 감정(의식)	→	현상 유지나 장래에 대한 불안 감정(방어)				
상실감 절망 충격	→	사회적 으로 구축된 수치심	→	자기재산 (가족포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감	→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집착심	→	불이익에 대한 생존전략

<그림 1> 침묵을 유지하려고 하는 감정 연쇄<sup>10)</sup>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이 끝난 후 성적상실감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 성적 개념을 토대로 한 수치심을 내면화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수치심이 구축된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폭력에 대한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수치심으

8) 사카모토 치즈코, 「전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9쪽.

9) 사카모토 치즈코, 위의 책, 9-10쪽.

10) 사카모토 치즈코, 같은 책, 20쪽.

로 변화하기도 한다. 이후 가족이나 재산이 생긴 경우, 그동안 구축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침묵하기를 결의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1)</sup> 들뢰즈는 수치가 복잡한 기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고 체험되는 경험, 즉 한 사람의 생물학과 전기를 한데 아우르는 것이라 한 바 있다.<sup>12)</sup> 바꿔 말하면 수치는 많은 다른 질서를 가진 신체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정동<sup>13)</sup>인 것이다. 사카모토 치즈코는 당사자들이 느낀 이러한 ‘수치’가 ‘피해’로 이행할 때 ‘증언’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증언은 ‘사적’ 기록이면서 ‘공적’ 기록이자 발화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김숨의 소설 『한 명』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내면이 ‘수치’에서 ‘피해’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해 커밍아웃을 했지만 끝내 증언을 하지 않았던 소설 속 ‘그녀’가 자신의 포지셔널리티를 옮겨가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수성 싸인펜으로 “나도 피해자요”<sup>14)</sup>라고 쓴다. ‘그녀’가 수성 싸인펜에 주고 있는 이 ‘힘’은 ‘수치’에서 ‘피해’로의 이행에서 드러나는 정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치미는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녀에게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그리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다.(중략)

11) 사카모토 치즈코, 같은 책, 20쪽.

12) 엘스페스 프로빈, 「수치의 쓰기」,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44쪽.

13) 엘스페스 프로빈, 위의 책, 145쪽.

14)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150쪽.

나도 피해자요.

백지에 쓴 문장을 소리내 읽던 그녀는,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말을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후주236)<sup>15)</sup>

증언을 하지 않고 있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인 ‘그녀’가 스스로를 불러내, 피해자로 명명하는 문장을 쓰고,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증언’하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말을 하면, 증언을 하면 ‘나’는 다른 몸이 되고 그 증언은 가해자의 문법에 기대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 장면 속에는 드러나고 있는데, 즉 수성 사인펜에 주고 있었던 ‘힘’은 백지의 글자로 이행했고, 그 이행의 과정에서 ‘그녀’는 말하고 싶은(증언을 하고 싶은) 충동을 지닌 존재로 변화한다. 이 변화의 과정은 힘의 이동과 존재의 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피해자로서의 포지셔널리티 이동은 지금까지 ‘침묵하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용을 보여주고 인용부분에 드러나는 ‘죽음’과 이어진다. 육체적 죽음이기도 하고 이미 살아있지 않았고,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죽음’조차 불가능했던 자신의 말과 삶이 ‘죽음’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이 진행되면서,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쪽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의 증언집 1권에서 3권의 집필 방식과 4권의 집필방식의 변화는 이 연구에 참여했던 김수진에 의해 자세하게 분석된 바 있다. 증언집 1권~3권의 증언 채록은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차례의 증언 채록을

---

15) 김숨, 위의 책, 152쪽.

통해 연구자가 증언을 재구성/가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수진은 당시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피해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론적 공부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증언 청취 과정에서 트라우마 전이 현상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sup>16)</sup> 이는 증언의 물질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증언이 발화자의 신체와 청자의 신체를 통과할 때의 변용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진은 증언집 4권이 트라우마적 경험과 그 재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역점<sup>17)</sup>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증언하기와 증언 듣기의 작업이 상호주관성이 만들어지고 표출<sup>18)</sup>되는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증언을 만난 우리도 점차 ‘증인’이 되어갔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증언하는 자-증언을 받는 자-증언을 읽는 자의 변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은 언어화 되는 과정 중에서 증언을 하는 자신과 듣는 연구자, 그리고 언어화 된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을 변하게 했다. 증언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증언이라는 행위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몸을 생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 전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언어화’라는 변용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연루되고 결부되어 버리는 정동적 전회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카이 나오키는 ‘후레아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후레아이’는 부딪는 것과 부딪히는 것, 더럽히는 것과 더럽혀지는 것, 침범하는 것과 침범당하는 것, 변용하는 것과 변용당하는 것, 상처 입히는 것과 상처 입는 것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사태를 시사<sup>19)</sup>한다. 접촉으로

---

16)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0(1), 2013, 43쪽

17) 김수진, 위의 글, 49쪽.

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2001, 13쪽.

19) 사카이 나오키, 「정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87, 2016, 366쪽.

피해를 입었다고 느껴도 실은 가해자로서 행동하고 만다는 두려움이 있고, 손끝을 대는 것이 상대를 파악하거나 소유하거나 ‘알아버린 것은 ‘아닌’<sup>20)</sup> 상태인 것이다. 증언을 읽는 자는 그 ‘읽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언을 하는 자의 경험과 증언을 받는 자의 경험에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이 행위는 증언을 하는 자의 경험과 증언을 받는 자의 경험을 알아버린 것도 아니며, 파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읽음이라는 접촉 이후, 증언을 읽는 자의 감각은 상처를 입기도,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감각이 된다. 타자의 증언을 ‘읽는다’는 것은 타자의 증언을 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한다는 것이기도 하며, 언어화 된, 조각조각 난 그들의 경험을 언어로 읽음으로서 그들을 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일은 윤리적인 일이기도 하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는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다수의 소설 작품이 출간되었다.<sup>21)</sup> 그러나 1990년대 증언의 시대로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소재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동일 작가에 의해 두 번 이상 창작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대상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다룬 표상연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소설을 쓴다는 것은 증언을 읽고/듣고 그것을 ‘소설’이라는 다른 형식의 언어로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많은 작가들이 일본군 ‘위안부’들의 ‘위해’ 썼고 그들의 삶을 전하기 위해 ‘소설’을 ‘영매’로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소설 속에 무당을 등장시키거나 영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쓴 듯한 글쓰기를 하였다. 즉 소설가 자신이 영매가 되어 그들의 말을 받아써

20) 사카이 나오키, 같은 글, 367쪽

21)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가 출간된 1982년부터 『한 명』이 출간된 2016년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소설은 46여편에 이른다.

왔다는 것이다. 소설은 소설을 만들어 내는 사람의 몸을 통과하여 풀어내는 것이고, 언어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언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삶과 말이 재현되어 왔다. 이는 앞서 연구자들이 했던 증언집 1권의 시행착오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언어를 가진 소설가는 증언을 토대로 특정 장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가필을 통해 증언을 ‘이야기화/언어화’ 시켜 온 것이다.<sup>22)</sup>

김숨이 쓴 『한 명』은 앞서 일본군‘위안부’들의 목소리를 소설화하여 만들어 온 작품들과는 다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숨은 자신이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증언자들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각주를 달기도 한다. 이 소설을 읽는 행위를 하면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을 한 번도 읽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본군‘위안부’들의 말을 입과 눈에 되뇌일 수밖에 없는 소설인 것이다. ‘읽는 몸’ 혹은 영매으로서의 소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을 읽는 자에게 직접 읽게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동안 읽는 몸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동하게 되는 방식이다. 김숨이 하고 있는 증언의 쓰기는 쓰는 몸에 말하는 몸을 끌어들이며 읽는 몸을 통과하게 하는 힘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명』은 경험을 언어화 하고, 그것을 받아 적고 다시 그것을 읽은 사람이 언어화/소설화하는 과정에 증언의 말들을 배치한 작업을 하고 있다. ‘남성’ 혹은 ‘민족’의 이야기에 영유되어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에서 멀어져간 언어들, 읽는이가 『한 명』을 읽고 되뇌이는 행위를 통해 정동되고, 정동한다. 당사자들의 말을 내 몸에 끌어들이고 읽고 정동하고 정동되는 매체로서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 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증언이, 읽는 자의 몸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

22) 물론 이러한 이야기화 자체가 정치성을 가지기도 한다.

### 3. 탈주하는 언어들과 정동하는/되는 독자

모든 장르의 법칙은 물성적(gender 'blind')이어서 장르의 형식을 깨지 않고 여자의 이야기를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3)</sup>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일본군'위안부' 소설이 일본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소설'이라는 완결되고 유기적인 서사문학을 만들어 왔다는 것에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소설'이라는 장르의 형식을 깨지 않고 완결된 일본군'위안부' 소설들이 만들어져 온 것일까.

많은 작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그들의 피해를 공감하게 하고 알리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인터뷰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이 발화되고, 서사화 되고, 소설화 되는 과정 중에 발화 주체와 문법은 이 글 서두에 있는 일본어의 에피소드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압사시켜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힘을 박탈당한 집단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 일으킬 수 있는 제한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들을 폭로한다.<sup>24)</sup>

『한 명』이 출간된 이후 계속해서 회자되어 왔던 이 소설의 특징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의 인용과 후주였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법과 단어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316개의 후주를 통해 수십 명의 생존자들의 목소리와 상황이 상호교차 되면서 정동되고 정동하고 있는 텍스트가 되었다. 생각하기, 글쓰기, 읽기는 정동하고 정동되는 우리 능력에서 필수적인 일부이다.<sup>25)</sup> 행위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의 한 가운데에서 '정동'이 발생한다.<sup>26)</sup> 바꿔 말하면 독자가 이 소설을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읽는 동

23) 정희진, 『혼자서 본 영화』, 교양인, 2018, 45쪽.

24) 스티브 모튼, 같은 책, 130쪽.

25) 엘스페스 프로빈, 같은 글, 137쪽.

26)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같은 글, 14쪽.

안 시간성과 장소성 그리고 언어의 의미망을 상호교차하며 작용하는 강도와 울림들 사이의 그 자체가 독자의 몸을 관통한다는 의미이다.

작품 속에서는 일본군‘위안부’였던 ‘그녀’의 현재 일상과 매개된 과거의 기억을 서술하는 작가의 문장들 속에 일본군‘위안부’들의 증언 문장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 실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증언한 문장과 소설 속 현재를 사는 인물의 문장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소설 속 인물의 기억과 현재도 항상 뒤섞여 있다. 정동은 우리로 하여금 “‘집단적’ 정동들의 전염성에 의해 증명되는, 자기와 타자 사이의 경계에 생긴 균열을 노출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나 신체의 ‘완결성’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sup>27)</sup>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뒤섞임, 작가의 문장과 증언의 문장의 뒤섞임이 드러내는 것은 완결된 서사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 명』은 피해를 증언한 생존자가 단 한명 남았을 때를 상정하고 시작된다. 이 생존자가 사는 집은 곧 철거될 재개발 예정구역인데, 그녀는 햇수로 5년째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등록되지 않은 거주자이다. 그녀의 일상은 재개발이 예정된 15번지 동네를 골목을 산책하는 것과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물들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일이다. 한 번도 이름을 밝히고 증언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그녀가 사는 일상의 사소한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된다. 매일 신는 신발을 신을 때,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을 때, 대문을 나설 때, 골목 안을 돌아다니다 높이 달린 창문을 봤을 때마다 그는 이미 만주의 위안소로 돌아가 있다. 잠재적인 것으로서 기억은 현재에 포함된 과거지만, 언제라도 삶에 다시 되돌아올 준비가 돼 있으며 현실화의 과정은 기억 그 자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의 인식을 반복한다.<sup>28)</sup>

---

27) 엘스페스 프로빈, 같은 책, 136쪽.

28) 제이슨 림, 한빛나 옮김, 「퀴어 비평과 정동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지리학』, 이매진.

옷수선가게 여자의 개를 대하는 태도가 혼란스럽다 못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그녀는 알겠다. 하하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sup>29)</sup>

이 인물은 말끔하게 직진하는 근대의 시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60여 년 전 만주 위안소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 그녀는 현재를 사는 것인지, 일상과 자신의 사고를 점령해버릴 정도로 침투해 오는 과거를 사는 것인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교차시간성은 끊임없이 정동적 주체의 일상을 구성해간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의 일상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의 ‘중언’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상에 겹쳐진 전쟁 시기의 생활이 그녀를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살게 한다. 이 세계는 작가 김숨이 만들 수 있는 세계도 아니며, 독자가 만들 수 있는 세계도 아니다. 이것은 정동하고 있는 ‘중언’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이며 계속해서 구성되는 세계이다. 이 ‘다른 세계’ 속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신문기사 군데군데 붉은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 그녀는 신문지 쪼가리를 집어 들고 붉은색 펜으로 밑줄 친 부분들을 소리 내 읽기 시작한다. 한 문장을 연달아 읽지 못하고, 언 동태를 토막 내듯 끊어가면서 읽는다.

오직 나 홀몸이니

거칠 것도 없고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느님이 오늘까지 살려둔 것은

이를 위해 살려둔 것.

죽어버리면 그만일 나 같은 여자의 비참한 일생에 무슨 관심이 있으랴...

---

2018, 111쪽.

29) 김숨, 같은 책, 54쪽.

왜 나는 남과 같이 떳떳하게 세상을 못 살아왔는지.

내가 피해자요.(후주228)<sup>30)</sup>

제시한 부분은 소설 속에서 생존자가 신문에 난 다른 생존자의 증언을 읽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증언을 읽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증언에 덧입힌다. 한편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생존자와 또 다른 생존자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면서 ‘증언’은 처음 증언을 한 목소리와는 다른 무엇이 된다. 완결된 소설 속의 인물이 증언을 읽고, 소설 밖의 독자가 증언을 읽는다. 세 목소리는 다르지만 겹쳐지며 함께한다. 증언의 언어는 작품을 초과하고 독자의 목소리도 작품 바깥을 초과한다. 목소리와 시간이 초과하고 있는 이 세계는 작품 속과 작품 바깥의 세계를 균열시키고 서로 이어지거나 연동된다.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으냐.(후주10)<sup>31)</sup>

너희들,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밥 많이 먹어라(후주222)<sup>32)</sup>

죽지 않았잖아. 죽지 않았으니까 울지 마(후주314)<sup>33)</sup>

이 말들은 소설 속 인물이 서로에게 하는 말들로, 모두 실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의 문장이다. 문장을 읽는 과정은 읽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먼저 증언자들이 들었던 말을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글자로 쓰인다. 글을 읽는 사람은 그 말들을 다시 몸으로 읽는다. 문장에는 증언자들이 들었던 목소리, 증

---

30) 김숨, 같은 책, 143-144쪽.

31) 김숨, 같은 책, 16쪽.

32) 김숨, 같은 책, 141쪽.

33) 김숨, 같은 책, 256쪽

언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읽는자들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결국 읽는 행위를 통해 서로 다른 질서를 지니고 있었던 몸들의 흔적이 이 문장들에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들의 ‘읽기’를 통해 완결되는 듯하지만, 그 읽기를 마친 독자들의 몸이 이행하게 될 ‘증언’의 정동은 독자의 정신, 몸, 역사의 폭발을 통하여 하나의 실체나 관념으로 존재하게 된다.<sup>34)</sup> 읽는이의 몸은 증언의 힘과 작가가 쓴 문장과 경험의 힘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장이 되는 것이다. 정동들이 읽는이의 몸 속에 들어오고 읽는이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과거, 현재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강도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로질러 발생<sup>35)</sup>하고 있으며 정동하는/되는 독자는 이렇게 탄생한다.

#### 4. 일상어의 역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한국의 역사를 써 온 말이고, 국가의 공문서를 작성해 온 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적 서사체계, 남성중심의 언어체계, 가부장적 사회체계 속에서 서술되어온 역사 속에서 여성의 ‘말’과 ‘언어’를 다시 쟁취해 여성의 역사를 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여성의 삶을 쓰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여성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줄 리 만무하다. ‘언어’와 ‘문법’의 체계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가라앉아 있는 여성의 삶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명』이 제시하는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가 써 온 언어와 문법 체계에

34) 엘스페스 프로빈, 같은 책, 143쪽.

35)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같은 책, 15쪽.

각주를 다는 작업이었다. 김숨이 소설을 구성하는 문장 속에 후주를 다는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문장, 어구들이 누구의 말이었는지 드러난다. 완결된 소설 속에 박제된 재현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에 그들의 역사가 겹쳐져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 명』 속에 등장하는 동사무소 공무원은 ‘그녀’가 살고 있는 15번지 일대 집들을 대상으로 실거주자를 조사하러 다닌다. 그는 ‘그녀’를 만나지만, 조카 때문에 ‘그녀’는 실거주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녀’는 동사무소에 등록되는 주민이 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평택 조카’가 정해진 대답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국가의 질문과 물음이 일본군‘위안부’에게 전혀 유효하지 않고, 대답할 수 없음, 말할 수 없음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사내는 동사무소에서 15번지 일대 집들을 대상으로 실거주자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한다.

“실거주자요?”

“가짜로 사는 사람 말고, 진짜로 사는 사람ियो.”(중략)

그녀는 조카가 단단히 이른 대로 말한다.

“조카요?”

“조카 부부가.....나는 이 집에 안 살아요”

많은 여성들의 말과 삶이 우리 말과 글로 등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그녀’처럼 가족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상황, 가부장적 가족관계 때문이었고, 그녀의 존재를 기록할 능력이 없는 국가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의 삶과 존재가 국가에 등록되지 못하고,

말을 하고, 문장을 국가에 전하고 있지만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 소설 속에서 계속된다. 소설 속의 모습은 해방 이후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와 삶이 침묵당하고 역사에 기재되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아침저녁으로 양옥집을 제 몸뚱이처럼 끌고 닦고 돌보지만, 자신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한다.

그녀는 벽에 못 하나 박지 않았다.<sup>36)</sup>

말과 글이 남성주체의 역사를 써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에서 하고 있는 후주 달기는 이 말과 글에 여성의 역사가 겹쳐져 있음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민족으로 일반화된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언어’를 부려 쓰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언어를 받아들여 자신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 쓰는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내가 밥을 먹기 전에 했던 ‘배가 고프다’라는 말에 일본군‘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상황을 설명했던 증언의 문장 중 하나라는 각주가 달린다면, 이 말은 전혀 일반적인 언어도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도 아닌, 여성이 처했던 역사의 한 장면이 묻어 있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는 주체는 일본군‘위안부’의 증언과 상황에 연루되어 버린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시간성이라는 것이 민족과 국가, 그리고 남성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체계에서 탈주하고, 등록되지 않았던 말과 글의 역사를 소환하는 것이 후주를 달아 여성의 말이었음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구의 말인지 ‘분명히 표현함(articulacy)’은 무엇이든 다 빼앗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지 않은 무기 가운데 하나<sup>37)</sup>였다.

---

36) 김숨, 같은 책, 196쪽.

간장독 위의 한 공기, 된장독 위에 한 공기, 고추장독 위에 한 공기(후주3)  
콩을 꾸어다 기껏 메주를 쑤어 놓았더니 배가 고프든 여동생들이 야금야금  
다 뜯어 먹어버렸다.(후주4)<sup>38)</sup>  
보고 싶어 죽겠어서.(후주9)<sup>39)</sup>

이처럼 일상적인 말들도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 속에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어느 일본군‘위안부’의 증언 속에 있는 목소리와 문장인 것을 들어내고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와 똑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는 몸을 주의 깊게 읽어내는 것은 말의 다른 역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어의 주요 문법을 내면화하고 있는 독자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 시간성과 장소성의 후주들로 인해 읽고 쓰는 몸이 정동되고, 정동한다. 관념들과 정동들, 혹은 사유와 느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의식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힘<sup>40)</sup>으로써 증언은 말하고, 또, 쓰여진다. 증언은 작가와 독자의 정신, 몸, 장소, 역사의 상호교차에서 발생하는 정동을 통하여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다수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들이 여러 겹으로 교차되면서 구성되는 정동은 ‘범주적인 정동’(예를 들면 슬픔, 분노, 수치)을 가로질러, 그 사이에서 작동한다.<sup>41)</sup> 이 정동적 마주침과 만남들이 만들어내는 윤리-미학적 공간은 증언이 언제나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 ‘대안적 역사쓰기’의 정답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

37) 오에 겐자부로, 『읽는 인간』, 위즈덤하우스, 2015, 228쪽.

38) 김숨, 앞의 책, 13쪽.

39) 김숨, 같은 책, 15쪽.

40) 엘스페스 프로빈, 같은 책, 144쪽.

41) 론 버텔슨·앤드루 머피, 「일상의 무한성과 힘의 윤리」, 『정동이론』, 갈무리, 2015, 250쪽.

## 5. 결론

앞의 논의를 통해 김숨의 소설 『한 명』이 활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증언 각주달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김숨이 소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증언 중의 문장을 직접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일본군‘위안부’를 재현한 많은 소설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가 혹은 서술자가 소설 전체를 장악하고 일본군‘위안부’를 재현해 온 많은 소설들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해’ 서술하는 순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삭제되어 버리기도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증언을 하는 사람의 말과 그것을 듣고 읽어 쓰인 소설은 박제된 재현이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다성성을 갖는다. 이는 증언의 과정, 증언록의 발간 과정, 소설의 각주달기 과정을 통해서 밝혀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다성성은 소설을 읽는 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자는 소설을 읽는 행위를 통해 전혀 다른 몸으로 변용된다. 바꿔 말하면 소설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을 품고 독자의 읽는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정동적 변용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명』에서는 남성주체의 역사를 써온 말과 글에 일본군‘위안부’들이 했던 ‘말’의 각주를 다는 작업을 통해 우리 말에 여성의 역사와 언어가 겹쳐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민족으로 일반화 된 말이 아닌 여성의 역사가 겹쳐져 있는 말의 출처를 밝히는 이 방법은 타자의 언어를 받아들여 자신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혀 쓰는 방법이다.

이 논의에서는 『한 명』만을 다루고 있지만, 『한 명』 이후 김숨 소설의 향방을 살펴보면 증언하는 사람과 읽는 독자를 염두에 둔 정동적 작용/행위로서의 ‘읽기’를 상징하며 쓰여지고 있는 듯하다. 이 논의에서는 다 다루

지 못했지만, 『흐르는 편지』와 『송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또한 정동적 텍스트로서 연구되어야 할 작품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하겠다.

투고일 : 2019. 9. 6. 심사기간 : 2019. 9. 9 ~ 20. 게재확정일 : 2019. 9. 23.

## |참고문헌|

- 김숨, 『한 명』, 현대문학, 2016.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최성희 외 2명 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 스티브 모튼, 이운경 역, 『스피박 넘기』, 앨피, 2005.
- 오에 겐자부로, 정수윤 역, 『읽는 인간』, 위즈덤하우스, 2015.
- 이토 시오리, 김수현 옮김, 『블랙박스』, 미메시스, 2018.
- 정희진, 『혼자서 본 영화』, 교양인, 2018.
- 캐스 브라운·개빈 브라운·제이슨 림, 김현철 외 3명 옮김, 『섹슈얼리티 지리학』, 이매진, 2018.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2001.
-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30(1), 한국여성연구원, 2013, 35~72쪽.  
UCIG704-001758.2013.30.1.001
- 사카이 나오키, 신현아 역, 「정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87, 2016.
- 사카모토 치즈코, 「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4.

## The turn to Affect and Writing Testimony

Jang Soo-hee

This article is Affect study of Kim Sum's novel, *Han-myoung*. Kim Sum uses the testimon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Han-myoung*. She uses the testimon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sentence to compose the novel, and footnotes the sentence to reveal the source. The us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s testimony and the source of such evidence were not common in other novels that represen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ading these novels has the following effect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who bears a testimony, a person who listens to a testimony, a person who listens to and writes a testimony, and who reads a testimony. And the sound that reads at each location overlaps. This reading activity makes the work different from before. Kim Sum's writing in this way provides the idea of a strategy to regain the history of women's words and writing in everyday language.

**Keywords** : the turn to affect, testimony, Kim Sum,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n-myoung*

